



KOSPI,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위한 과정

What's new

- KOSPI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1천억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 기술적으로는 120일 이평선의 저항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올해 들어 나타나는 양호한 실적 전망을 고려할 때 120일 이평선의 저항은 결국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Our view

-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다시 시장에 부담이 되었지만, 장기 바닥권에서 국제유가 급등락은 자연스런 모습입니다. 지속적인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KOSDAQ 지수가 2008년 6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600pt를 넘어섰습니다. 600pt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동평균선 구조로 KOSDAQ 지수는 장기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KOSPI,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대 돌파 가능

- KOSPI는 120일 이평선에 도달한 기술적 부담으로 하락. 2011년 하락 이후 장기 횡보 과정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할 때, 120일 이평선의 저항을 쉽게 넘은 적은 없었고, 이번에도 적지 않은 공방 예상.
- 하락한다면 돌파된 중기 하락 추세선 위치한 1,925pt 수준이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 높음.
- 그러나 결국 120일 이평선 돌파 가능해 보임. 첫 번째 이유는 올 해 들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 주요 비금융 기업들의 2015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1월 초 보다 조금 높은 수준임. 이는 작년과 완전히 다른 패턴임
- 두 번째 이유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 전일 국제유가 급락했지만 이미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후에 하락한 것으로 장기 바닥권 형성 시점에는 큰 폭의 등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45달러를 하회하는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 KOSPI 단기 조정이 나타날 경우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권고

KOSDAQ, 단기 부담 불구 장기 상승 가능한 구조

- KOSDAQ 지수가 600pt 돌파는 심리적 의미도 있지만 주봉상 2011년 이후 중기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가운데 이전 고점대를 의미 있게 돌파했다는 점이 긍정적
- 작년 4월과 9월 고점대를 연결한 추세대선을 돌파한 점도 긍정적
- 주봉상 20, 60, 120주 이평선이 수렴된 가운데 나란히 상승하는 등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나타난다 하더라도 장기로 안정적 상승 가능한 구조 형성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주식시장 투자전략

KOSPI,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위한 공방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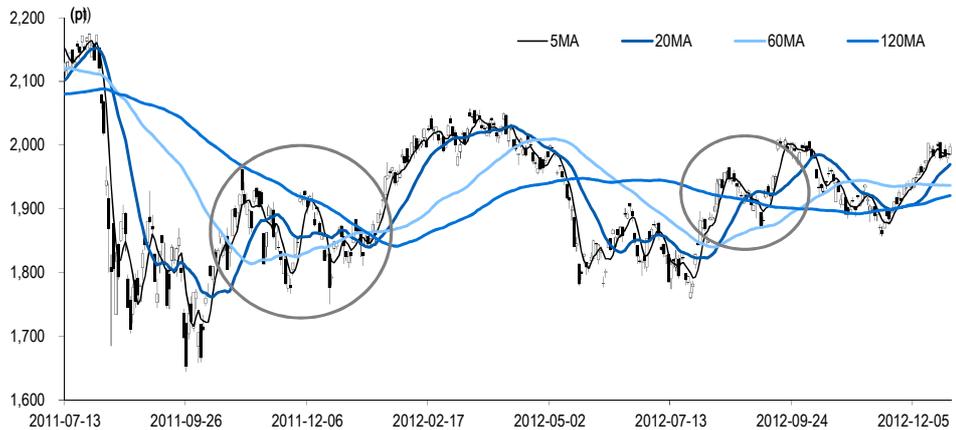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순매도하면서 약세로 마감되었다. 지난 1월 16일에 단기 저점을 형성한 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1천억원 이상 순매도한 것은 전일이 처음이었다. 동시에 기술적인 부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2월 들어 상승 탄력은 둔화되었고, 2월 4일에는 장 중에 1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장 중 고가를 형성하고 상승 폭을 줄인 가운데 마감되었다. 경험적으로 120일 이평선은 중기 추세의 분기선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소간의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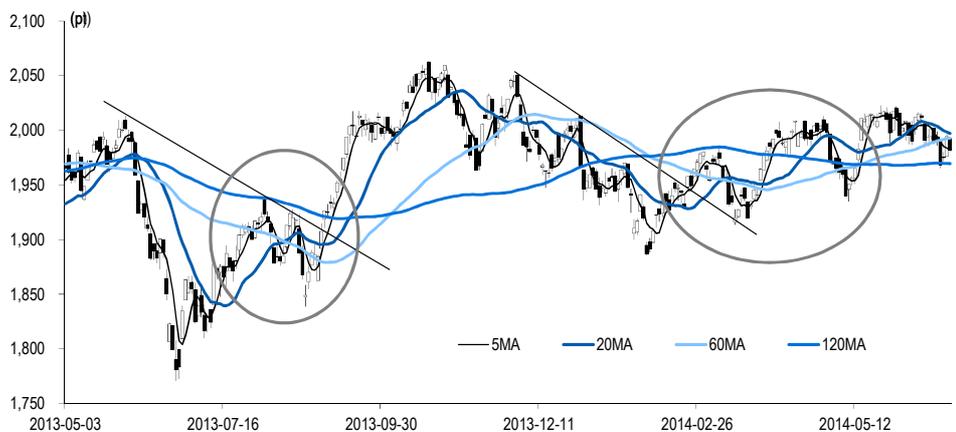
KOSPI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2011.7 ~ 2012.12)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위와 아래의 그림을 보면 2011년 7월에 급락하면서 장기 횡보가 시작된 후 **바닥권 형성하고 박스권 상단선으로 상승할 때에는 예외 없이 120일 이평선이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하거나 동 이평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한 후에 상승세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20일 이평선 부근에서 등락이 진행되면 대부분 돌파에 성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결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추가로 조정이 진행된다면 작년 8월과 12월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이 위치한 1,925pt 수준이 중요한 지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OSPI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2013.5 ~ 2014.5)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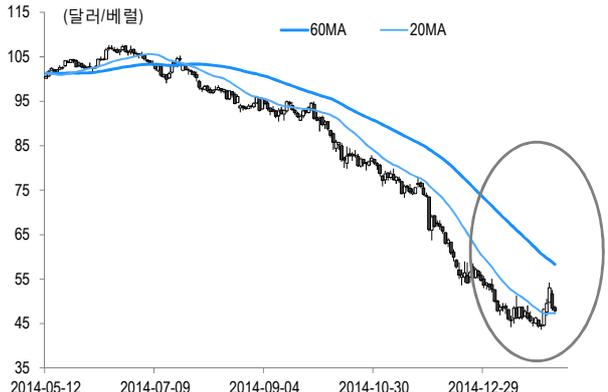
바닥권을 형성중인 국제유가

WTI 선물 최근월물 월봉, 추세선 (1997 ~ 2015)



자료: Reuter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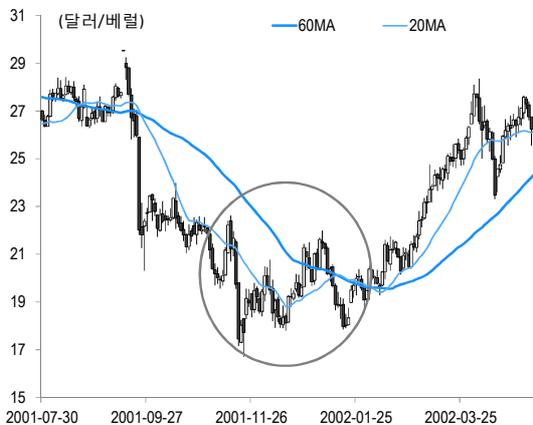
WTI 선물 최근월물 일봉, 이동평균선 (2014.5 ~ 2015.2)



자료: Reuter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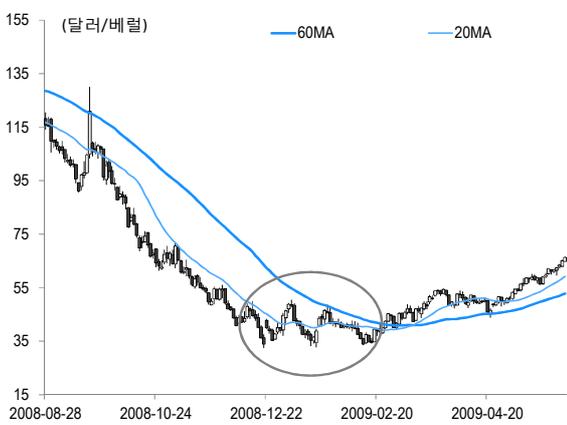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하던 국제유가가 급락한 점이 시장에 부담이 되었지만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최근 바닥을 형성한 45달러 수준의 지지는 매우 강하다. 상당 좌측의 국제유가 월봉을 보면 국제유가의 장기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45달러 수준에 위치해 이 가격대를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상승 과정에서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는데, 경험적으로 급락세가 진행된 후 20일 이평선을 회복하면 단기간에 이전 저점대를 하회하고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WTI 선물 최근월물 일봉, 이동평균선 (2001.7 ~ 2002.4)



자료: Reuter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WTI 선물 최근월물 일봉, 이동평균선 (2008.8 ~ 20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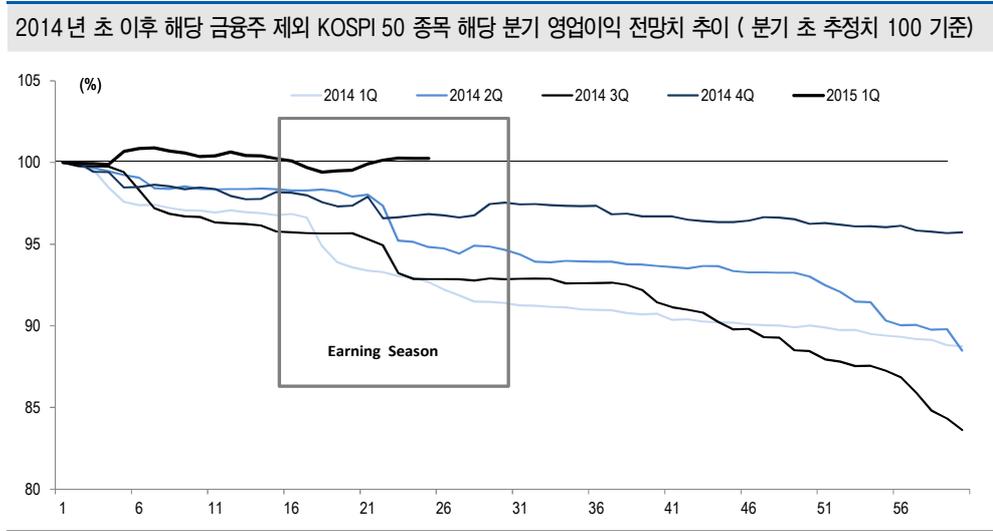
자료: Reuter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이전 페이지 하단의 그림과 같이 장기 바닥을 형성 시점의 국제유가는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몇 달에 걸쳐 바닥을 다지는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당분간 국제유가가 추세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에 대해서 중립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되 장기로는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2015년 1분기 실적 전망치

KOSPI가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을 우위에 두는 이유는 양호한 실적 전망 때문이다. 아래 차트는 작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금융주를 제외한 KOSPI 50 해당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의 합계를 분기 시작점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다. 1분기는 1월 1일에서 3월 30일까지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고, 2분기는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것이고, 3분기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3분기 전망치를, 4분기는 10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4분기 전망치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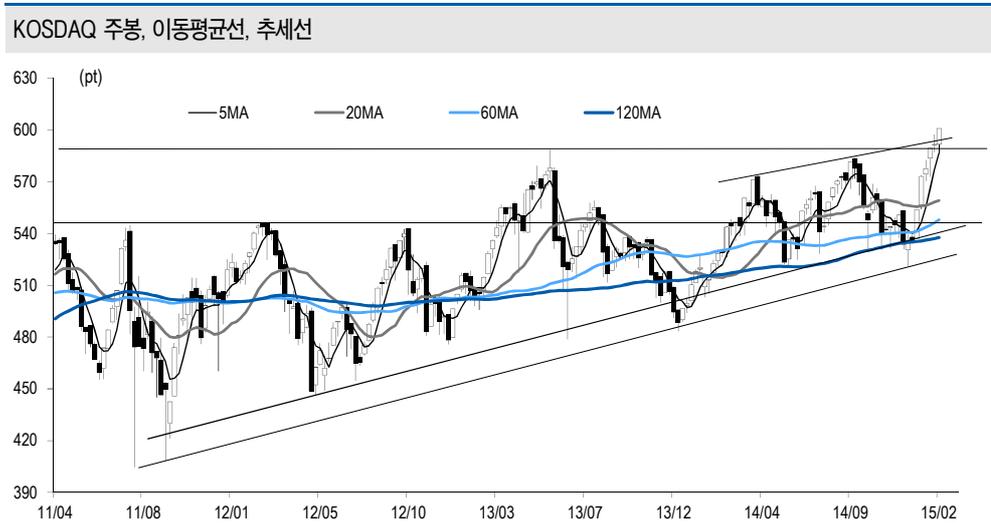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작년의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분기 내내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전분기 실적발표가 있을 때 하향 조정 폭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전망치는 연초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등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그림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1분기보다 높게 형성된 가운데 상승 중이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KOSDAQ 지수 600pt 돌파의 기술적 의미

KOSDAQ 지수는 2008년 6월 27일에 600pt 를 이탈하고 처음으로 600pt 를 회복했다. 600pt 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도 있지만 특히 기술적으로 KOSDAQ 시장은 큰 상승이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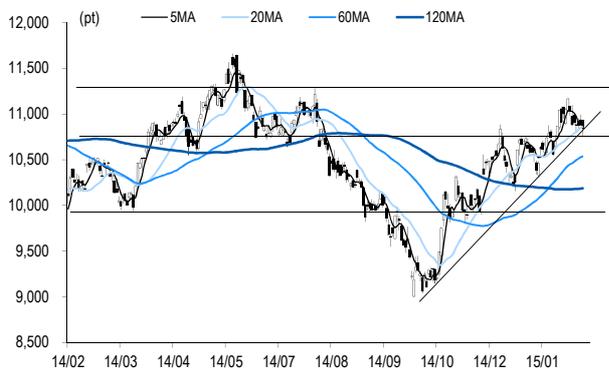
KOSDAQ 지수는 2009년부터 6년 간 장기 횡보가 진행되었지만 2011년 부터는 지속적으로 중기 저점을 높여왔고, 중기 상승세가 이어질 때에는 박스권 돌파 시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장기 이평선들이 모두 수렴하는 가운데 점차로 상승세로 전환되어 장기 상승세가 시작되는 초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졌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20, 60, 120주 이평선들이 수렴된 가운데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상승이 가능한 모양이다.

일봉상으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작년 4월과 9월 고점을 연결한 추세대선을 돌파했고, 이격 부담을 극복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져 좀더 상승한 후에 기간 조정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일봉상 가격조정이 나타나더라도 60일 이평선을 하회하지 않고 중기 저점이 형성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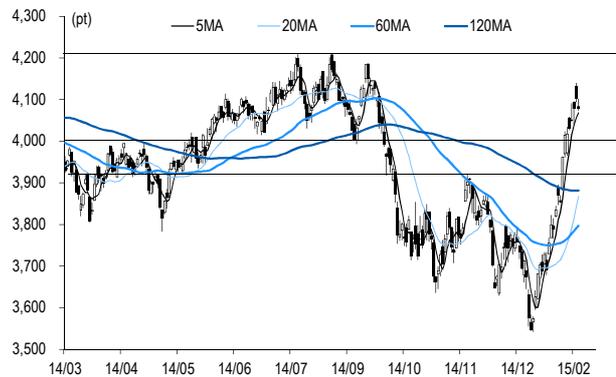
KOSPI 투자전략 :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전기전자 업종지수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화학 업종지수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 한국증권거래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위의 차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기전자 업종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전 고점대에 근접했고, 화학업종지수도 비슷한 모습이다. 아직까지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아 조정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탈할 경우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 업종들이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한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